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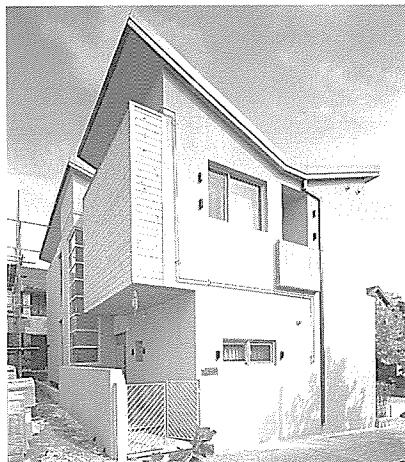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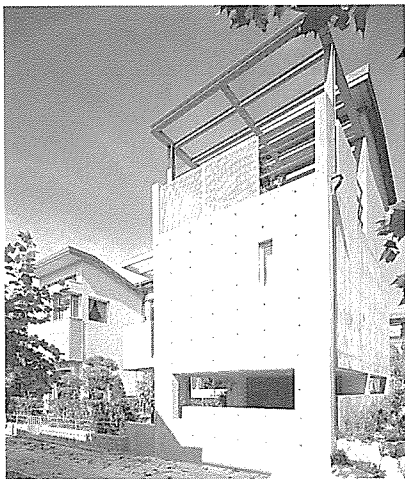
일산 마두동 주택

Ilsan Madu-dong Residence

이동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Lee Dong-Chil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65-1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37.40㎡(71.81평)
건축면적	118.65㎡(35.89평)
연면적	273.63㎡(82.77평)
건폐율	49.98%
용적률	90.33%
주차대수	2대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 라멘 및 벽식구조
최고높이	8.25m
외장재료	외벽단열 시스템



자리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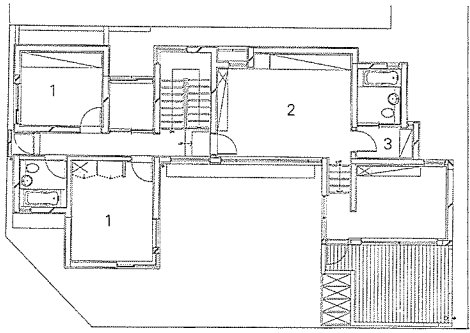
그곳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의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두 번에 접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형이었고, 사방으로는 단독 주거군 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일산의 신주거지는 도시설계 상으로는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택들이 폐쇄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주거에 있어서의 폐쇄성에 대한 추구는 현 시대 도시주거의 일반적 경향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열려있는 건축으로 이 대지위를 자리매김 하려 한다.

이중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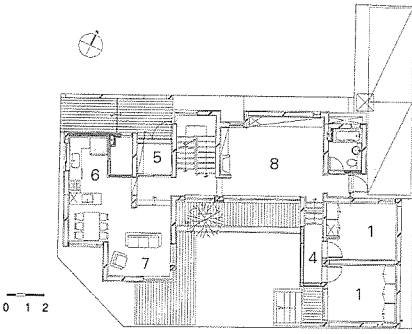
이 장소에서 이중성의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조형을 탐구하고자 하였는데 이중성 제기의 근본원인은 대립이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탈피 또는 완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나의 독자적인 판단과 잣대로서의 경험이다. 두개의 날개와 이중성을 지닌 재료의 사용 및 단독주택에 있어서의 개방과 폐쇄라는 이중성의 대립을 조화로 이끌기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목재와 노출콘크리트, 정원의 나무 널과 피로티 하부의 모일 수 있는 장치 등이 시도되었다. 처음 구상은 외벽은 간결함을, 지붕은 파격을 고려하였으나 두려움이 커서 지금의 지붕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공간의 이중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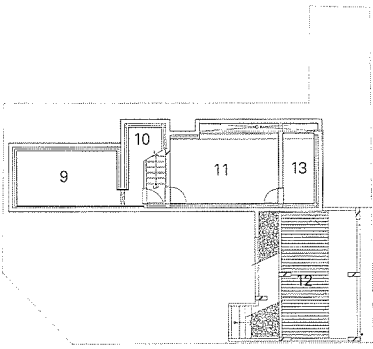
열려 있는 정원와 피로티 하부의 반개방적 공간, 거실을 개방케 하고 식당을 독립시킴써 침실 등을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정서에 맞도록 구상하였는 바, 이것은 이러한 이중적 정치들을 제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주거정서와 서구화를 병치시킴으로써 대립성을 완화시키고 서로의 충돌을 완충시키려 한 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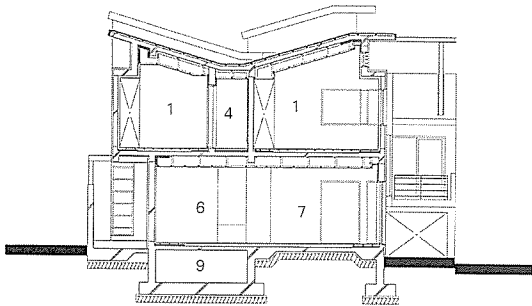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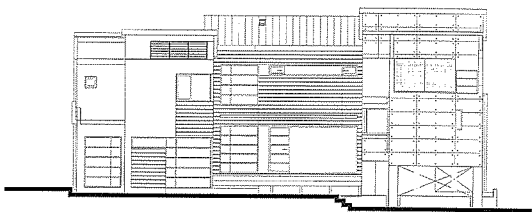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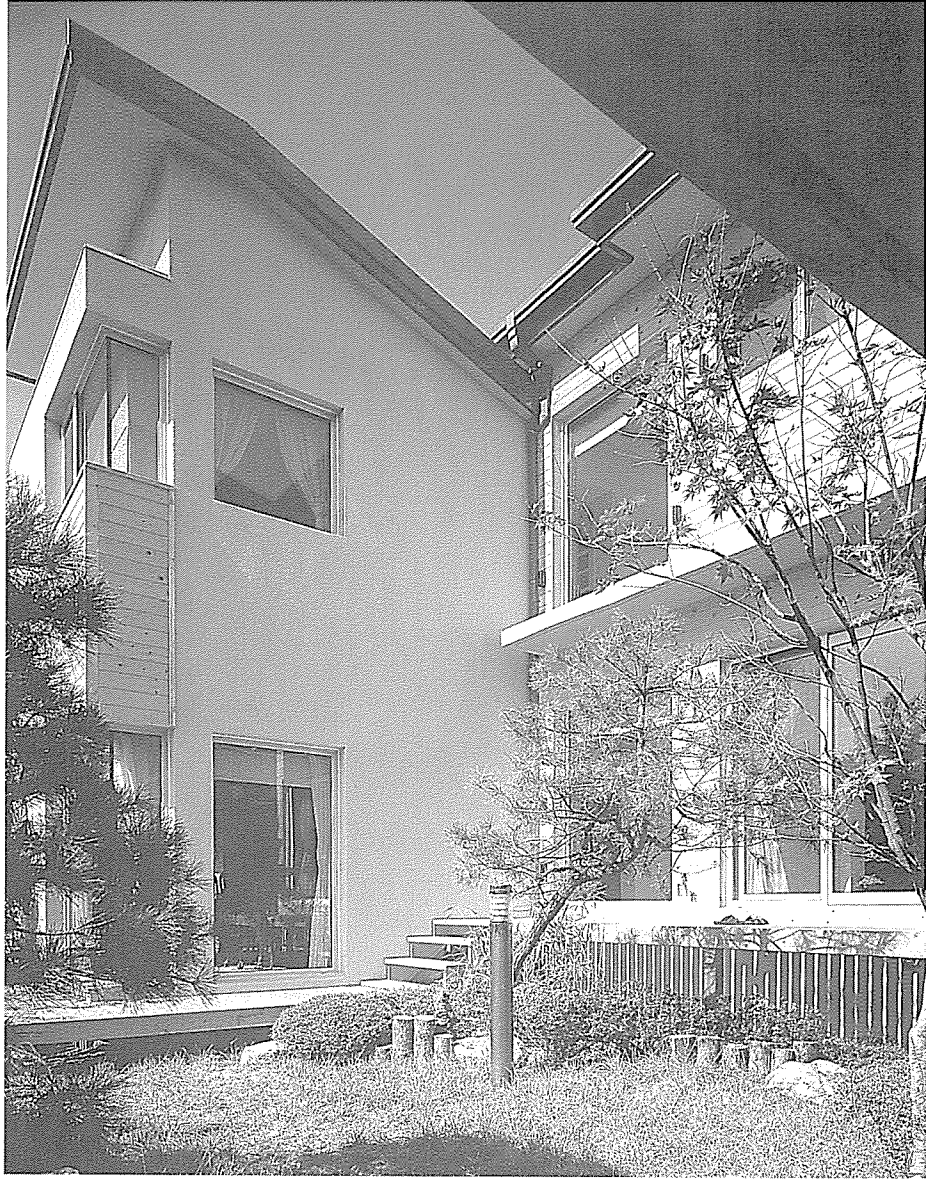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종단면도



남측입면도



- 1. 침실
- 2. 주인실
- 3. 드레스룸
- 4. 복도
- 5. 현관
- 6. 주방
- 7. 가족실
- 8. 거실
- 9. PIT
- 10. 창고
- 11. 농이방
- 12. 선반가든
- 13. 보일러실

